

C-12. 교정치료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복의 임상증례

김형렬, 김연옥,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치아가 결손되게 되면 인접치아들은 무치악 부위로 이동하여 기능적, 심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치료가 시행되며, 교정치료 후에 확보된 결손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복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이러한 환자에 있어서 implant 식립을 통해서 기능적, 심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연구방법

증례1

#46,48을 발거한 후에 distolingual area로 기울어진 #47을 molar up-righting 시켜서 공간을 배열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증례2

하악 양측 측절치의 선천적인 결손으로 하악 전치부의 spacing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31,41을 midline 측으로 배열하고 #32,42 area의 공간을 확보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결과

증례1

#47 교정치료, #46 임플란트를 통해서 저작기능이 향상되었고 방사선적, 임상적 소견은 양호하였다.

증례2

#32,42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였는데 #32 부위는 bone width가 부족하여 임상적 치관이 길어지게 되었다.

결론

치아결손으로 인한 부정교합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이 수립된다면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병행하여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